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악몽의 갑진년이 가고 을사년 새해를 맞았다. 지난 12월 3일 아밤, 뜬금없는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던 그 순간, 나는 1980년 광주의 5월 17일 저녁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의롭고 용감한 광주 시민들이 또 피를 흘려야 하는가라는 비통한 마음에 TV 앞에 앉아 안절부절못하면서 틀던 생각이 지금도 가슴을 떨리게 한다. 아니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어야 하고 무고한 백성들은 독재자의 총칼에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느냐라는 억울함 때문에 터질 것 같던 가슴이 지금도 아려온다. 역사는 진보하면서 더 나아지면서 반복되지, 그날은 반복되지 않았다. 5·18 정신은 어느 순간에 살아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불의한 폭력인 계엄은 막아야 한다는 의분심에 남녀노소가 국회로 모여들어 탱크를 가로막으며 계엄을 저지하는 위업을 달성하고 말았다. 불의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노라는 죽음을 무릅쓴 광주학생, 이 역사적 교훈은 국가와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애국심으로 승화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아도 계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망상만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여 국가의 요인들을 체포

5·18 정신이 나라를 살렸다

하여 사살하려던 폭력의 내란, 아니 이런 폭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 미숙아들도 하지 않을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인가. 참으로 미치광이가 아니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 나는 이런 정권이 오래갈 수 없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민심을 배반한 정권, 법을 멋대로 적용하는 정권,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정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유지하던 정권, 타협과 협치를 거부한 정권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고 거듭거듭 주장했었다. 그런 모든 잘못보다도 북한을 건드려 전쟁을 도발하려던 술책과 대일 굴욕외교를 끊임없이 자행했던 일은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가장 큰 악행이었다. 이렇게 하고도 국민이 따라주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면, 참으로 미치광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승만 독재, 박정희의 유신독재, 전두환의 군부독재에도,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싸워서 그들 모두를 몰락하게 하고야 말았다. 이런 위대한 국민을 거짓과 위계로 속여서 집권 연장을 획책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비판해야 할 것인가. 윤석열의 거짓말은 정말로 위대하고(?) 거창했다. 만인이 다 알고 있는 뻔한 사실을 아니라고 우겨대던 그 뻔뻔함과 그 후안무치한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었다. '바이든'을 '날리던'이라고 우겨대면서 거짓말 시리지는 진행되었다. 자신의 장모는 '십원 짜리 하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김건희는 '주식은 손 해만 보고 관여하지 않았다' 채상병 사건에서 '격노'해

서 수사를 방해했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며 거짓으로 일관했다. 계엄령 이후에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성명서까지 발표해놓고, 사직 당국의 소환에 불응하고 발부던 체포 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싸우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에 또 있던 말인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그렇다고 하자. 문제는 태극기 부대이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다. 내란 행위를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정확히 시청했는데 그런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니 어찌자는 것인가. 계엄령이 국회 유리장을 부수고 난입하였고 총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는데 그런 것이 폭력의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박탈하겠다는 포고령 내용만 보아도 내란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우리는 광주항쟁으로 내란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란 수괴는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가 그 다음이다. 그들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내란범죄자가 있고 부화수행자가 또 있다. 내란이 아니라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내란선동, 내란방조, 부화수행 등 범죄자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부하들이 모두 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수괴는 죄가 없다니 말이 되는가. 사직 당국은 반드시 그들 모두를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 이는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잔꾀를 부리지 말고 수괴도 엄벌해야하지만 엄호하고 방조하는 모든 무리들도 엄벌해야 한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무등산 산장 입구, 산 구비를 돌기 직전 수줍은 아이처럼 나무 숲 사이에 시비가 숨어 있다. 꼭 한 방울 눈물 같은 시비, 김현승의 시비 '눈물'이다. 조용조용 시를 읽어 내려간다. 그러다 보면, 숨어있는 시비처럼 시의 의미도 울음을 꼭 잡고 견디며 꼭꼭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몇 차례 더 읽어보니 돌에 박힌 슬픈 시어들이 똑똑 깨어나 날개를 펴고 파닥거린다. 때마침 부는 바람을 타고 늦재로 바람재로, 원효사 종소리를 따라 날개를 활짝 펴고 중봉을 향해 비상하는 것 같다. 시는 슬프다. 아니 학창시절, 배운 시들 대부분 슬프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백석의 여승, 정지용의 유리창, 박용철의 나무야 간다, 이용악의 전라도 가시내 등 운통 슬프다. 누구에게나 기쁜 순간은 짧지만 그 슬픈 현실은 두고두고 고달프다. 또 살아있는 것은 어차피 유한하기에 슬프다. 우리 역사가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삶이 근원적으로 슬퍼서 그런지 모른다.

아름다운 슬픔

그래서인지 슬픈 시를 읽어 가면 슬픈데, 기묘하게도 그 시를 다 읽을 즈음에는 그 슬픔이 나도 모른 사이 잔잔한 가라앉아있다. 그리고 막대한 가슴이 뻥 뚫린다. 슬픔 속에는 눈물 속에는 영혼을 위무하는 그 무엇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걸까. 김현승 시인은 윤희주를 보는 것처럼 가날프다. 그는 7살 때부터 광주에 살지만 진학을 위해 광주를 벗어난다. 그리고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던 3학년 때 다시 광주로 되돌아온다. 1935년 우가기 총독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참배 거부를 빌미로 숭실학교를 폐교시켰다. 그때 다형의 위장병도 재발했기 때문이다. 그의 시가 식민지 시대, 고통 받는 민족의 비애를 담아낸 것이 시대적 산물이라면, 생명의 근원적인 한계를 지시한 것 또한 개인적 건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광주로 온 그는 숭실학교 교감으로 취임하고,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6월 광주에서 박용, 장용건, 손철, 이동주 등 지역 작가들과 함께 계간지 신문학을 창간할 정도로 시에 대한 열정을 쏟는다. 그리고 조선대 교수로 재임 중이던 그 해, 4살 된 아들을 잃는다. 전쟁 중이었으니 약 한병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전제는 오직 이뿐. 나의 가장 나이 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오직 하나 기도, 그 자식을 데려간 신에게 매달리는 일뿐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런 고통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담아낸, 슬픔을 극도로 절제하여 눈물로 쓴 추도시가 바로 눈물, 바람재의

바람 소리처럼 지금도 울음을 그치지 못한 눈물이다. 시를 읽어가면서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디마디 맺힌 절뚝한 힘이 느껴진다. 자신이 믿고 의지한 신을 원망할 수 없는 슬픔, 그럴수록 더욱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슬픔의 무게를 시로 표현했다고 조금이나마 기쁜 해졌을까. 아들이 잠든 광주가 싫었을까. 그는 1960년 조선대 부총장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짐을 챙겨 광주를 떠난다. 숭실대 부교수로 취임한 후로는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허무에 대한 시를 쓴다. 그리고 1975년 숭실대학교 재를 시간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삶은 외모와 표정에 나타난 것처럼 뼈째 마르게 운통 슬프다. 그의 고독을 위무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신앙이었고, 또 하나는 자유였을 것이다. 기독교가 들숨이었다면 날숨인 문학이 있어서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다형은 광주에 살면서도 늘 고향방 평양을 잊지 못한 듯하다. 그는 광주와 평양을 오가며 일생을 살았다. 그의 삶 절반은 광주이고 반은 평양이었다. 또 반은 신앙이었고, 나머지 반은 시였다. 무등산에서 그의 삶을 읽고, 그의 시를 읽는다. 그의 삶은 슬프고 그의 시는 더 슬프다. 그래서 아름답다. 슬퍼서 아름답다. 시퍼렇게 아름답다. 아니 아름다워서 슬프다. “가을에는/ 호을로 잇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기고

공무원 근무환경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류갑상
동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한때 인기가 치솟았던 공무원 사회에서 2030들의 엑소더스가 심상치 않다. 낮은 급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들 하지만 공무원 급여 수준을 모르고 공무원이 된 사람은 드물다. 단순한 급여 요인이라고보다는 급여에 비해 과도한 업무 하중, 공직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한 보람과 열정의 상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7급 이하 공무원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결혼과 가족 형성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심화시키는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광주시의회의 불필요한 자료 요구다. 의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시간을 단축시키고 조직의 효율성까지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의회는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

고 행복한 삶을 살 때, 그들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이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광주시는 민주 인권 도시로서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정치 퇴근과 같은 근무 환경 개선은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광주시는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광주가 민주 인권 도시로서 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의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은 단순히 내부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젊은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주 2일 정치 퇴근을 보장한다면 광주시가 민주 인권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직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는 도시가 되어 시민들에게도 모범적인 사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광주시의 직장 문화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 또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광주가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 퇴근 문화를 조직 문화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정치 퇴근이 어려운 경우라도 최소한 주 2일 정도의 정치 퇴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기 개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 결혼 및 가족계획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직무 동기를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하며 이직률을 줄이고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치 퇴근이 보장되면 특히 미혼의 공무원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산율 증가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면 지역은 활력을 되찾고 공동체의 연대감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구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사회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치 퇴근 보장은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사회에 정신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공무원들이 더 건강

社說

수습 일단락...유족 지원·원인 규명은 계속돼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 1주일만 여운이 남아있고 현장 수색 등이 일단락되면서 수습되는 양상이다. 어제까지 희생자 179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가족들에게 인도됐고 나머지 3명도 오늘 중으로 유가족들이 인도받아 각자의 연고지에서 장례 절차에 들어간다. 사고 현장도 엔진 등 유류품 수거가 완료되면서 1차 수습이 마무리 돼 이전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가족들이 떠나면서 비탄에 잠겼던 무안공항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모객들의 발걸음 끊이지 않고 있다. 참사 1주일 동안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추모객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힘이 됐다. 5000여 명이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와 식사와 생활필수품 지원에 힘썼고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직능단체는 전문 분야를 살려 이들을 도왔다. 경찰과 소방은 물론 국토부와 전남도

등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바에 따라 현장 수습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유가족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자원봉사자들과 관계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는 11일 무안공항에서 다시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주일만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아픈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가까운 공동체 정신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했다. 1단계 수습은 마무리되었지만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 치료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을 찾아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과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 등 공항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항공기의 정비 불량, 관제탑과의 교신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

공수처, 엄정한 법 집행으로 헌법 질서 세우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크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지만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5시간 30여분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우려해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민들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호처 요원들을 인간 방패 삼아 관저에 틀어박힌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았다. 모든 원인은 비겁하고 치졸한 윤 대통령에게 있지만 경호처장을 비롯한 일부 경호처 간부들의 그릇된 충성심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찰과 군인들은 바리케이드를 풀고 공수처에 협조했지만 경호처 총성과

간부들은 '몸싸움에서 밀리면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했다. 1차 집행 실패를 놓고 미온적인 대처였더라 공수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늘 자정이다. 이제를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 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의 엄정한 집행 뿐이다. 1차 집행 때 5시간 30분이나 대치하면서도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2차 집행시 강제력을 동원하기 위한 충분한 명분이 된다. 체포영장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내란 세력에게 헌법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경호처를 움직이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다.

無等鼓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 여가 지났다. 올해는 60간지 중 42번째 되는 푸른 뱀의 해다. 을(乙)은 푸른색을, 사(巳)는 뱀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뱀은 지혜와 영민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변혁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구약성서에 나오는 뱀과 관련된 서사는 다소 결이 다르다.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부정부정 대상으로 그려졌다. 지혜가 승하여 교활함으로 변한 것인데, 그만큼 뱀이 명민하고 상황판단이 빠르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뱀 관련 지명이 적지 않은데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도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210여 곳 가운데 전남이 42곳으로 파악됐다. 마을 27곳, 계곡과 섬 각각 5곳, 산 3곳, 골짜기 2곳이 뱀 지명과 연관이 있었다. 뱀처럼 긴 모양의 섬인 '장사도', 구불구불한 형상의 '뱀골' 등이 대표적이다.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의 사도는 뱀의 지형이며, 마을 앞 와도라는 섬은 뱀이 개구리를 잡기 위해 건너가는 모습에서 비롯됐다.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푸른 뱀의

해는 1905년 을사년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당했던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다. 일본의 강압에 못이겨 고종이 조약에 서명을 했던 데서 을사늑약(勅諭)이라고도 한다. 우리말 '을씨년스럽다'라는 어휘가 '을사' (乙巳)년에 발생한 변고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을 만큼 당시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민초들은 국권침탈을 '을사년스럽다'고 표현했으며, 이후 이 말은 '을씨년스럽다'로 변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를 정의하는 말 가운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이 있다. 작금의 비상계엄은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와 닮았다. 120년 전 을사조약은 '을사조약'이라는 매국노들의 반민족적 행위에서 비롯됐다. 역사는 오늘의 '비상계엄' 또한 국회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치군인들이 벌인 '쿠데타'로 기록할 것이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경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이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Table with 2 columns: English/Chinese text and Korean text. Include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headers, contact info, and a note about subscription rates.